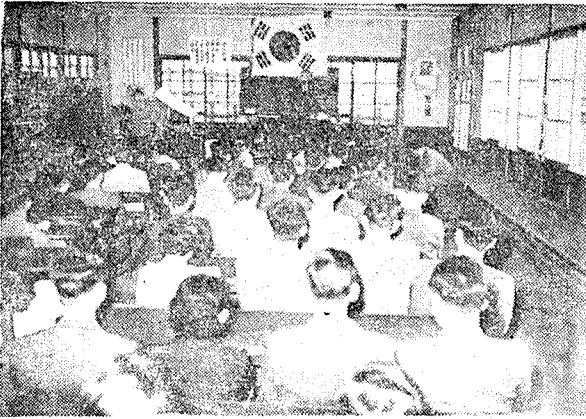


全國圖書館大會 一 開 會 式

7月21日(土) 9時



◎司會 李鍾文(圖協 事務局長)=지금으로부터 全國圖書館大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읍니다. 國民儀禮가 있겠읍니다.

一同 起立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國旗에 對하여 拜禮(일동 국기에 대해 배례)

바로(일동 바로)

愛國歌奉唱은 1절만 부르겠읍니다.

愛國歌奉唱 始作(일동 애국가 봉창)

着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式順에 따라서 大會經過報告를 드리겠읍니다.

經過報告 李鍾文=大會經過報告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나

간 近 10年間 圖書館協會가 다시 強化 되어가지고도 7年以上을 圖書館法의 制定을 爲해서 저이는 圖書館人의 立場에서 여러가지로 方法을 세우고 저이들이 세운 案을 要路에 陳情도하고 法의 制定을 促求도 했던것입니다. 그것이 革命 以後 昨年부터 그 氣運이 成熟해져서 法草案이 文敎部에서 法制處로 갔다가 지나간 3月 달에 다시 再審이랄까, 檢討하기 爲해서 文敎部로 返戻되었읍니다. 그러다가 4月 달에 다시 新案이 法制處로 올라 갔읍니다. 圖書館法을 國家에서 制定 한 다는 것은 저의가 생각하기에는 國家가 圖書館事業을 해야되겠다는 意慾을 表示하는것이라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것입니다.

圖書館法을 推進해 나가는 데 여러가지 隘路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이가 생각하는 것은 圖書館法을 制定해서 圖書館事業이 國家의 事業으로 着手된다면 우리 圖書館人들의 立場에서 볼때 오늘 韓國의 現實에서 그대로 돈과 法만 있으면 圖書館 事業이 着着成功的으로 되어 나갈수 있느냐 하는것을 생각할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나라에서 앞으로 圖書館事業을 効率的으로 해 나아갈 길을 摸索할 方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圖書館協會와 우리 圖書館司書들이 當面한 問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事務的으로 協議한 結果, 技術的이고도 現實的인 問題를 打開해나가는 길을 講究하자. 그 方法을 圖書館 協會와 文教部가 折衝한 것이 지난 5月이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가 介在되어서 解決 못하다가 지난 6月18일에야 非바의 側과 口頭 合意가 되었는데 內容은 現實을 한번 檢討하는데 그 方法은 全國圖書館大會를 열되, 財政的인 面은 非바의에서 支援해 줄것으로 合意를 보았습니다. 圖書館協會는今年度 事業豫算에 大會費가 計上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財源을 外部에서 끌어드려야 되는데 非바의와 合意가 된 것이 大會費의 3分之 2를 非바의에서 대고 3分之 1은 圖書館協會에서 負擔하는 이런 方向으로 合意가 이루어져서 6月20日 第4次 圖書館協會 定期理事會에서 이案이 承認되었었습니다.

우리가 大會를 가지려면 必要한 手續節次가 있습니다. 于先 集會屆가 나와야 움직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月5日 날에야 비로소 本大會에 對한 完全한 案이 섰음

니다. 지금부터 15日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相當히 짧은時間입니다. 財政과 時間的으로 制約을 받는 環境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번 大會입니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圖書館協會 事務局職員으로서 經過報告兼謝過말씀을 드려야 될것은 計劃이 疎忽했다는 點입니다. 우리가 案을 作成해서 地方에 보내는데 있어서 個人과 地方事情이 다르기 때문에 몇번이나 고쳐야 되었는데, 그런關係로 事務局職員들이 印刷所에 들어가서 일을 보는 등 無理가 많았습니다. 地方別報告에 있어서는 江原道, 全北, 濟洲道가 除外되었는데 그것은 不可避한事情에 依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諒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新聞社에 強力한 PR活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結果는 疑心스럽습니다. 이點 非悚스럽게 생각하고 簡單히 經過報告의 말씀은 마치고겠습니다.

(장내 박수)

◎司會 李鍾文(事務局長)=다음은 式順에 따라 本協會 閉會長任으로부터 閉會辭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閉會辭

閉 泳 珪(韓國圖書館協會長)

지난봄, 우리協會로서 推進해 나아갈今年一年의 事業企劃을 設計하면서 그중에 무엇이 앞으로 1年동안 우리의 最高目標가 될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던끝에 「1962年은 圖書館法制定의 해!」가 되어야겠다는 우리의 뚜렷하고도 懇切한 念願을 다시한번 다짐한바 있습니다.

多幸히 圖書館法의 制定發布는 앞으로

別다른 支障이 없는限 우리의 目捷에 到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오랜 念願인 圖書館法이 새로히 制定될 段階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能事は 다했다는 安易한 생각을 갖기커녕 오히려 圖書館人들에게 지워진 使命을 이제부터 더욱 무거운것으로 賦課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레 銘心해야 할 줄 아는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길을 開拓해 가면서 圖書館文化를 이땅에 씨뿌리고 그리고 圖書館을 통한 社會奉仕에 獻身한다는 데에 일의 보람을 느꼈고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오던 터였습니다.

이제 圖書館法의 制定發布를 눈앞에 두고 우리에게 지워질 새롭고도 더욱 무거운 使命이란 무엇이 되어야 할것인가? 우리의 能力과 誠意를 다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의 使命을 完遂키 爲하여 同志의인 結合을 더욱 鞏固히 하자는데에 本大會를 여는 目的이 있습니다. 대저 本大會는 오늘과 來日, 이틀에 걸쳐 그동안 一線에서 服務해 오시던 여러 同志들로부터 地域別과 館種別로 報告를 들으므로써 우리에게 지워진 當面한 課題란 무엇인가를 工夫하고 다음으로 必要한 諸問題에 對한 세마나와 討議의 形式을 빌어 進行될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大會의 開催에 이르기까지 恒常 깊은 理解와 援助를 아끼지 않으신 文教部當局과 比叻의 教育使節團 諸位께서 우리의 뜨거운 感謝를 드려 마지 않는바입니다.

(장내 박수)

祝 辭

文教部長官 代讀

洪 雄 善 學務局長

◎司會=다음은 式順에 따라 文教部長官의 祝辭인데 長官께서 緊急國務會議에 나가시느라고 洪雄善學務局長께서 代理로 나오셨는데 洪局長은 우리 일에 相當한 關心과 協調가 계신분입니다.

(장내 박수)

◎洪雄善(文教部 學務局長)=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圖書館事業에 關係하시는분들이 全國의인 規模로 이런 모임을 가지신데가 別로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임에 나와서 제가 長官님을 代身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된 그러한 榮光을 가졌다는 것은 저 個人으로서 쉼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紹介의 말씀에 제가 多少나마 圖書館事業에 對한 理解가 있는것 같이 紹介가 되었읍니다만 이해는 없습니다. 다만 關心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이 圖書館事業이 얼마나 現代人의 生活에 있어서 重要한 구실을 하고있는가 하는데에 對해서 제가 짐작하는바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機會가 있어서 외국엘 다녀보았는데 外國大學 或은 公共施設을 둘러보고서 제일 부러운것은 무엇보다도 마음대로 책을 볼수있게 圖書館施設을 마련해 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圖書館人이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切實히 느꼈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事實 圖書館事業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일도 大端히

크고 또 韓國에 圖書館 事業이 앞을 바라보는 遠大한 計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모인 이것이 하나의 始點이 되어 앞으로 韓國圖書館 事業에 하나의 커다란 轉換을 가져오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圖書館에 全然 門外漢이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會長任의 開會辭 가운데에서도 뚜렷히 밝혔습니다만 圖書館事業은 어떤 法的인 바탕위에서 展開되도록 해야되며 그렇게 하기爲해서는 法을 만들고 法을 調整하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法을 運營할 圖書館人 여러분들이 積極的으로 法的制定을爲해서 좀 심한말로 말하면 鬭爭을 展開해야 될것이라고 생각되기에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圖書館 事業이라는 것은 흔히 누구나 理解 하는것 같습니다만 事實 圖書館 事業을 理解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專門的인 知識이 아니고는 一定한 見解를 말할 수 없는 謂말까요 아주 浮로페쇼날한 그러한 事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圖書館事業에 關心을 가지고 있다는것, 그 程度로서는 圖書館 事業에 對해서 自己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資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機會에 여러분에게 激勵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圖書館事業이 바른 軌道위에서 活潑히 展開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個人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자리에 參席치못하시고 저를 代身 보낸 文敎部長官의 생각이라고 分明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제가 알기로는

現在 圖書館法이 國務會議의 議決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次官會議에서 審議中에 있는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審議에서 難點이 있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은 그法을 審議하는분들을 陰으로 陽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도와서 그분들이 圖書館事業의 바른뜻을 짐작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早速한 時日내에 圖書館法이 通過되기를 바라며 또 저의 로서도 할 수 있는 바 努力을 다 하겠습니다. 미리 準備해가지고 나온 祝辭와는 다른 말씀을 드렸으나 다만 어쨌던 오늘과 來日 이틀동안 열리는 이 全國圖書館大會가 유종의 美를 걸우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解決못하던 모든 問題와 아울러서 圖書館 將來를 내다보고 期必코 成就해야할 圖書館法이 될수 있는한 早速한 時日內에 通過가 되어서 意慾의인 여러분의 事業이 進行되기를 거듭 바랍니다. 簡單하나마 文敎部長官을 代身해서 이 모임이 있게된 그러한 意義를 새삼스럽게 높이 評價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 모임의 成果에 對해서 커다란 期待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傳해드리고 여러분의 健康과 健鬪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장내 박수)

祝 辭

W. E 가슬린博士

(피 마디 敎育使節團 團長)

◎司會=다음은 Dr. Goslin의 祝辭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祝辭의 말씀을 하시기전에 이분에 對해서 暫間 紹介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韓國에 圖書館專門家を 派遣한 피바피大學 教育使節團의 團長으로서 2年동안 韓國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以後 58年度에 本國에 가서 韓國擔當本部 責任者로 이때까지 本國에 계셨고 이번에 피바피大學팀이 撤收하는데 殘務處理로 日前에 來韓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韓國에 남긴 功勞가 相當히 큼니다. 이분은 美國教育界에서 相當히 이름있는 指導者인데 특히 우리 韓國에서 이런분을 團長으로 모셨다는 것이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公式的인 祝辭를 우리 圖書館人이 듣게 되었다는 것도 大端히 意義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내 박수)

◎윌라드 E 가슬린博士(피바피 教育使節團 美國本部長)=이번에 또다시 韓國을 訪問할 機會를 가져서 오늘 이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스케줄을 보면 開會式이 10시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簡單하게 人事程度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本使節團의 事業에서 불세 過去 6年동안에 특히 圖書館 分野를 볼 것 같으면 Mrs. Swiger, Mr. Burgess, 그리고 Mr. Croslin 세 분이 圖書館 分野를 擔當했었는데 이 分野가 다른 分野보다 많은 成果를 올린데에 對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여러분의 協力과 協助에 對해서 本人은 기쁘게 생각 하는 바입니다. 5年前만 하더라도 이 많은 圖書館 分野에서 일하는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再次 말씀드리자면 圖書館 分野

의 發展 卽 圖書館人들이 養成되고 오늘 이와같이 全國의인 모임을 가졌다는 이 事實은 圖書館 分野가 얼마나 發展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本使節團에서 일하던 Mr. Burgess 氏는 韓國圖書館發展에 關해서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美國에 가서라도 그분한테 여러가지로 韓國의 圖書館 分野에 對해서 傳할생각입니다.

이 機會에 제가 自由陣營 여러나라에서는 圖書館 發展에 對해서 어떤것을 要求하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생각합니다. 어느 國家를 莫論하고 教育이라는 것은 大端히 重要합니다. 특히 教育에 있어서 어느 國家에서는 制限된 사람에 依해서 모든것이 이루어지고 教育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自由陣營 民主主義 體制에 있어서 個人的 自由를 믿는다면 이것은 廣範圍하게 누구나 教育의 惠澤을 받을수 있는 方向으로 이끌어져야 될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圖書館의 役割이라는 것은 大端히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것입니다. 各 個人的 知識은 勿論, 國家全體에 있어서 國民에게 知識을 普及하고 거기에 奉仕하고 있는 機關이 圖書館인것입니다. 어느 國家에 있어서나 圖書館의 役割이라는 것은 여러 教育分野에 있어서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近來에 와서 우리가 살고있는 20世紀 現在에 있어서 科學分野는 勿論 此外 社會科學 및 人文科學 各分野에 있어서 圖書館은 가장 重要的 機關으로 認定 안할수 없는 時代에 當到했습니다. 圖書館이라 하면 그냥 書籍이나 材料를 蒐集하는 것이 아니고 必要한 資料를 科學的으로 國民에

게普及할 수 있는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圖書館員의 訓練, 圖書館行政, 그外 複雜하고도 廣範圍한 圖書館의 여러가지 基本的인 問題가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圖書館에 蒐集된 여러가지 材料라는 것은 모든 分野에서 모든 사람들이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며 圖書館이 할일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圖書館事業의 發展을 爲해서 全國圖書館大會에 參席하신 여러분에게 人事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亦是 過去 6年

동안에 圖書館分野가 많은 發展을 한데 對해서 大端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가 微力한 힘이나마 이 分野를 爲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意義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을 저는 美國에 가서 美國 同志들에게 傳하겠습니다. 여러분의 健闘를 믿니다. 感謝합니다.

(장내 박수)

◎司會者=場所가 비좁은 關係로 全體會議부터는 이뒤에 있는 崇義女子高等學校 講堂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迅速히 그러로 옮겨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